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46호 【루게 제 25189호】 주제 105 (2016)년 2월 15일 (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환영하는 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위하여 2월 13일 성대한 환영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었다.

김영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박영식 동지, 리명수 동지, 양형실 동지, 김현홍 동지, 박범기 동지, 오수용 동지, 김평해 동지, 김영철 동지, 최부일 동지, 로두철 동지, 조연준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군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장에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을 열렬히 축하한다!》, 《《광명성-4》호발사에서 성공한 기세로 종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백두산대국의 자주적권리와 무진막강한 국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는데 공헌한 위훈자들을 축하하시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주정복의 길에 바친 애국충정을 값높이 평가하시여 평양에 초청해주시고 대들두고 길이 전할 영광을 안겨주시었으며 오늘은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자리를 같이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부받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계가 지켜보는

나가지!》라는 구호가 드리워져있으며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세워져 있었다.

연회장앞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설주 동지와 함께 목관관에 도착하시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은조선을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주체의 위성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백두산대국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

이시며 자주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적대세력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 복잡한 정세속에서 력사적인 당 제7차 대회를 눈앞에 두고 나라의 운명과 조국의 존엄을 걸고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할것을 결심한것은 전파배기 애국자, 우리 당에 충실한 붉은 과학전사들을 굳게 믿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당은 동지들을 믿고 동지들은 당을 굳게 믿는 혈연적인 믿음의 힘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성공이라는 결과를 안아올수 있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원수님께서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발사함으로써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수명옹위전이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우주정복의 길은 단순한 과학의 길이기에 혁명의 길, 자주의 길이었으며 우리의 평화와 자주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인 동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수명옹위전이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가운데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대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위대한 우리 국가의 자존과 권위, 강용한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팽활한 우주만리에 보란듯이 울려세운 우주정복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당과 국가, 군대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적대세력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 복잡한 정세속에서 력사적인 당 제7차 대회를 눈앞에 두고 나라의 운명과 조국의 존엄을 걸고 지구관측위성을 발사할것을 결심한것은 전파배기 애국자, 우리 당에 충실한 붉은 과학전사들을 굳게 믿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당은 동지들을 믿고 동지들은 당을 굳게 믿는 혈연적인 믿음의 힘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성공이라는 결과를 안아올수 있었다고 하시었다.

우주정복의 길은 단순한 과학의 길이기에 혁명의 길, 자주의 길이었으며 우리의 평화와 자주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인 동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수명옹위전이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환영하는 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1 번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리대공의 우주에 최첨단물과전의 산물, 자강력의 산물인 위성을 폭발시킨것은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시었다.

동지들의 불같은 애국충정의 구슬땀은 그대로 연료가 되고 추진력이 되어 주체위성이 0.001mm의 편차도 없이 정확히 우주에 쏘아 올려졌다고 말씀하시었다.

동지들은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당의 전투적명령을 결사판철하기 위하여 온넉과 지혜를 바쳐 싸웠으며 대성공이라는 결과를 안아옴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고 우리 당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위하였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대성공을 통하여 우리 인민에게는 신심과 용기를 주고 우리 조국의 전군을 가로막으려는 적들에게 호된 타격을 가함으로써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를 아로새기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강력의 기치를 만능의 보검으로 들어쥐고 나아가는 백두산대국의 주체위성은 2월의 봄하늘가에 황홀한 비행을 새기었다고 하시면서 오늘 특대사변은 전적으로 우리 과학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심이 안아온 자랑찬 패승, 값높은 대승리라고, 당의 평도적 권위를 백방으로 옹위하고 반만년민족사에 전무후무한 또 한차례의 위성발사라는 대성공을 안아온 동지들은 주체조선의 장한 영웅들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에 당중앙의 전투적과업을 어떻게 판철하여



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줌으로써 동지들은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총돌격, 총대진해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위성,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인 《광명성-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백두산대국의 국력을 만방에 떨치고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준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사이라고 하시면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위력을 떨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백두산대국의 전진속도를 더

욱 가속시키자면 과학전선이 용을 쓰며 일어나고 주체과학의 신비한 힘이 작용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동지들은 오늘 대성공을 더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도약대로 삼고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총대진하여 앞으로 주체조선의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폭발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동지들이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한시도 잊지 말고 실천전, 최첨단물과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쳐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위성발사의 대성공을 안아온 우리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위하여, 우주정부의 더 큰 승리를 위하여, 오늘 승

리의 기쁨을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잔을 들것을 제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연회참가자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대성공적발사를 위하여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시고도 그 성과를 자기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위대한 스승, 위대한 아버기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열렬한 박수갈채를 던지셨다.

연회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우주정부분야에서 최첨단물과전을 계속 힘있게 벌리며 공화국의 자주적인 평화적우주리용전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여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위성,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성,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성들이 우주만리대공에 끝없이 날아오르게

할 참가자들의 드높은 애국충정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었다.

연회에서는 《광명성-4》호의 발사성공을 축하하는 모란봉악단공연이 있었다.

모란봉악단의 전체 예술인들은 선전지명의 천세적애지와 대용단으로 남들같은 열혈병도 주저않았을 최악의 역경속에서 우주정부의 위대한 미래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으로 심장을 끓이시며 우주강국건설에 온넉과 심혈을 짱그리 기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성발사는 과학의 길이기에 혁명의 길, 자주 길이라는 백두산천출위인의 역척불변의 신념과 강인담대한 배짱을 안고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우주과학의 높은

명마루를 향해 줄기차게 달려온 잊지 못할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주체의 붉은 당기울 뜻으로 삼고 백두산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여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의 레도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강대한 우리 조국의 기상과 본태를 힘있게 과시하며 위대한 김정은조선의 무궁무성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 공연은 참가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연회참가자들은 한생토록 잊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대같은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중앙과 사상도 숭경도 받들음도 함께 하며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본사정치지도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로정완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뜻을 표시하여 14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인 김책공영 었다.
종합대학 연구사 로정완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제아의 따스 통신은 김정은 평도자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편합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평도자의 지도 밑에 진행된 확대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준비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김정은 평도자께서는 이번 회의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

을 더욱 심화시키며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철저히 세우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조선의 앞길을 가르막을 지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중국의 신화통신, 국제방송망, 미국의 AP통신, 타이신문 《망크로포스트》, 알제리 인터넷 신문 《알 빌라드》와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슬로벤스키 인터넷홈페이지 kdr.sk는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나이지리아의 인터넷홈페이지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구관속 위성 《광명성-4》호를 발사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 소식도 올렸다.

본사기자

국제김일성상, 국제김정일상을 미국 인터넷백과사전이 소개

국제김일성상과 국제김정일상을 소개하는 자료가 6일 미국의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미디어》에 올랐다.
사진은 국제 김일성상과 국제김정일상의 제정경위와 구성, 수여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망라된 국제김일성상사회의와 국제김정일상사회의의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 활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인민군장병들과 전국의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내달신문 《이과란》과 내달기자협회, 주제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내달기자협회, 내달조선선선협회 인터넷홈페이지를, 슬로벤스키의 인터넷홈페이지 kdr.sk는 김정숙평양장미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로제아방송망상 연해변강위원회 기판지 《브라우다 브리모리아》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대적으로 개편된 금강계곡유원지관광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실었다.
슬관보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래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래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가 최근 로제아방송망상 하바루스크강위원회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제아연방공산당 하바루스크강위원회 제1비서 알렉산드르 그로모브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래양절과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래양절 및 광명성절경축 인디아준비위원회가 1월 27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인디아인

넬리 조직하기로 하였다.
* * *
광명성절경축 준비위원회가 7일 도이틀란드 쾰른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선과의 친선협회 도이틀란드지부 대표 우도 케러센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평도자 김정은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찬보도들을 통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조선의 존엄,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백두산총대로 빛내이 자

광명성절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레식 진행

【평양 2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은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레식이 14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불타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은동지의 대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광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찬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독송으로 사수하자!》,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보위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기념제양대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있었다.
주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레식에는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리명수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혁명학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주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조선인민군악단의 레식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은동지의 대양상을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메로가



발사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연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은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말을 삼가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부처의 혁명전쟁과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로 이끄셨으며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어 20세기를 태양조선의 세기, 자주의 세기로 빛내이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장 수심 성상 선군의 보검으로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셨으며 끝없는 애국헌신으로 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민선대회를 마련하여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헌정성을 다 바치시어 반민선군주주의에 영항스러운 년대기를 수놓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대양으로 찬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평도를 총체로 충직하게 따르는 사회혁명을 승리로 이끄시었으며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어 20세기를 태양조선의 세기, 자주의 세기로 빛내이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장 수심 성상 선군의 보검으로 조국과

지지점으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 나가겠다는것을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다시 한번 굳게 맹세한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전세위인들께서 인제주시 혁명의 총대, 주체의 불은 당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자주, 자립, 자위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갈 신념의 구호들을 우렁차게 외쳤다.
이어 광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과 각급 군사학교, 혁명학원 학생들의 분열행진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은동지의 대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붉은기둥대의 호위를 받으며 광장에 입장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기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은동지의 초상기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최고사령관을 대오앞에 휘날리며 혁명군악에 맞추어 발걸음도 느느이 광장을 누벼나가는 인민군장병들의 열광마디에는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보위해 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 백두의 대업을 총대로 끝까지 한수해관 자주적군위병들의 결승의 기상이 어려있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레식은 끝났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평도에 의하여 지구관속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으로 백두산대국의 무궁무진한 국력을 민방에 파시하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인민군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히 찾아하며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애국의 설도 높이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기를 마다에서 물과기를 열이제끼고 굳건정신, 굳건본대, 굳건기질로 온 사회를 힘있게 인도해나가겠다.
우리 인민군대는 오직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리키시는 한방향으로만 나아가며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총동력에서 선군혁명의 전진의 원동력, 억척의

우러고 그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당성단면과 혁명화를 적국 다그치고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여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혁명본대를 고수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용모를 완벽하게 갖추어나가겠다.
우리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지니고 주체위성발사의 완전성공을 안아온 과학자, 기술자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싸움준비반성에 총력을 집중하겠다.
후반의 실천화, 과학화, 현대화를 종자로 틀어쥐고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원력한 실천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진짜 배기싸움군대로 믿음직하게 준비하겠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싸움준비와 군생활개선에서 세기되는 예로와 난관을 자력갱생, 견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파죽이 쏘고 위원의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옹위하는 전진전투의 원동력이 되었다.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본분히

(시) 2월의 봄강산

신 문 경

눈송이가 시작된 새봄의 태동인가
이 땅 그 어디사나
민복을 일컫는 봄우파와 함께
내 조국에 밝아온 유대론 2월

그리워라
사무치게 그리워
이 나라 강산에 인민의 가슴가슴에
가득차 넘쳐흐르는 장군님 사랑
생신 날마저 집을 떠나 안고 사신
그 녀편이
얼매되어 푸르익는 2월의 봄강산이여

어찌 눈속에도 꽃이 피지 않으랴
눈덮인 대지를 한순간에 녹이며
《광명성-4》로 꽃추억을
꽃모자를 뿌리는 경사로운 이 땅
이러의 거창한 전변의 문을
하늘에서 먼저 열어놓는 내 조국

꽃고개에 걸이치는 양어장에 들어서도
꽃없이 펼쳐진 청춘과원에 서보아도
이 가슴에 이르러는 어머니의 열과 정
지 푸연한 운실바다에 비껴오는것은
아침복에 흰눈을 엮고 들어서는
장군님의 따뜻한 그 미소

위성, 미해... 그 이름도 황홀한
과학자지리에서

과학의 대전당으로
번영하는 오늘에서 더 광명한 재일에
꽃없이 펼쳐가는 대동로우연
오늘도 들려오는듯 장군님의 아전차
소리

하늘과 땅 바다에서
복계의 군락을 펼쳐는 피성들은
눈보라를 휘어잡고 세상을 굽어보는
정일봉의 번개와 우뢰소리

우리 받아안은 천만가지 행복은
장군님 그 품에서 태어난 북
꽃들도 나무도 흐르는 강물도
2월의 봄에 시련을 쓴
성서로운 이 강산

어머니의 그 한생 뿌리가 되어
인민의 천만살은 만일하거니
장군님의 뜻을 안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강국의 꿈 현실로 펼쳐가는 내 나라

아, 어머니를 위하여
그리움의 대하 적방치는 2월의 봄강산
장군님의 승리로 내 조국엔 영원히
적들의 세월만이 끊어지 흐르며
2월은 이 조국을 무궁도록
무장전쟁으로 이끌어가리라

—아아 어린이들의 소행인것 같소
희한한 꽃달이 아니라
꽃꽃꽃꽃이어서 더 눈물이 나누면

손저어 부르면
어머선이 달려올것만 같아
마음이며 학교길을 더듬으시는 그이
어데 갔느냐 소녀들이
매일밤 꿈결에서 만나보면
아버지장군님께서 너희들을 찾으시는데

영광의 이 순간
행복의 이 순간
은 숲이 적에게 실배이는데
한껏 지저귀며 노래하며
그이께로 새들도 노래쳐오는데

기특한 들꽃소녀들을 끌어안으시듯
꽃꽃꽃을 소중히 안으시는 장군님
무릎을 다질리 쓰다듬어주고싶은
아버지의 그 마음인가
오래도록 놓지 못하는 들꽃달달

산과 강이 들었어라
살가 맞아선 흰구름도 들었어라

(시) 바다여, 그리움의 황금해여!

방 명 혁

평양을 떠나시어
꽃없이 이어오신 전선길
천리만가
2천리만가
장군님은 동해의 가슴에서
달리던 아전차를 멈추시었네

앞에는 출렁이는 푸르른 바다
한복에 안겨드는 파도소리
우리 장군님 문득 하시는 말씀
—어기서부터 배를 타고 갔시더

달리고달려온 쉬임없는 전선길
그대로 달리던 목적지는 지척인데
어이하여 우리 장군님
파도이는 바다길에 오르시려는가

피로가 겹쌓인 그이께
바람세찬 배편은 밟고 힘찬 걸
그이를 막으며 폭로로 그냥 가지라고
일군들 간절히 아뢰이는데
—배길로 가면 힘은 들겠지만
고기배들이 날아서

그들을 찾아서
은 나라에 내세워주자고 하시는 말씀
—앞으로 그 애들을 꼭 찾아
내 만나보겠소

아, 전선길에 피어난 들꽃소녀
자연의 꽃들은 피는 계절 따로 있어도
장군님 사랑속에 사시절 향기풍기는
들꽃소녀
은정이린 선물도 보내주시고
병사가 된 그날엔
전선천리 또 오시어 만나주시었나니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다 몰라도
장군님 불러주신
들꽃소녀 그 이름은 누구나 다 알아
해와 달이 흘러 어머니가 되어도
너희들은 영원히 들꽃소녀!

아, 하늘 가득 땅 가득 들꽃향기 넘친 길로
포다시 달리던 아전차...
장군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속에
세월가도 지지 않는 아름다운 들꽃송
이여

인민을 찾아 병사들을 찾아
산악이 막아되면
절벽위에 길을 내고
달리다가 막아되면
파도를 헤쳐가며
장군님 열어가신 천리 또 만리

그 어디나
한몸이 그대로 등불이 되시어
병사들이 일하는 갑갑한 어둠속을
오래도록 밝혀주시던 무지개동글은
인민들의 거울같은 손수레행렬과
나뉘지 않는 아전차를 몰아가시던
못 잊을 복방의 눈보라같은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고싶으시어
가시던 길 멈추시고
과도치는 배편에 오르신 우리 어머니
그이의 그 녀편은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이어지지 않았
던가

얼마나 기뻐하시랴 우리 장군님
그날처럼 배편에 다시 오르시디면
풍어기 날리는 《단풍》호를
포구마다 쓸아치는 물고기 폭포를
보시며
어머님의 환하신 미소 지으시리

만민의 배고동소리며, 아비여다오
원수님 펼쳐주신 《이제이경》의
이 기쁨
황금해의 비파결이여
그옥한 바다항기를 실어가다오
장군님 계시는 금수산기슭으로

(시) 길에 대한 생각

최 광 일

이름모를 들길
힘찬한 산길...
길은 길마다
우리 장군님의 발자취
소중히 품고있는
이 나라의 길이여

그 어디에 서보아도
이 강산을 프락처럼 밟으시던
그이의 발자국소리가 들리는듯
흰눈매인 한그루 타막솔에도
눈에 익은 아전복사리가 밝혀오는
아, 내 조국의 길이여

인민을 찾아 병사들을 찾아
산악이 막아되면
절벽위에 길을 내고
달리다가 막아되면
파도를 헤쳐가며
장군님 열어가신 천리 또 만리

그 길에서 언제나
그이는 인민과 함께 세웠다
장군님께 인민은
힘이며 기쁨이며 한생의 최열
인민에게 그이는
행복이며 영광이며 빛나는 승리

말해도 통행의 너머바위에
내우에 썩은아닌 아전식사마저
어이하여 다 못 드신재 먼길 떠나셨
느냐
말해도 오 높고높은 구봉영아
어이하여 이름없는 너의 굶어 굶이
그이 한평생 못 잊으신 명길이 되었
더나

그 길은 멀고도 험해
전선길을 비추던 달빛조차도
꽃같이 사라지지 못했다
그 길은 찬바람이 너무도 모일어

길길한 평지의 모닥불조차
그이의 인물을 누여드리지 못했다

이 땅에 좋은 길이 없어
힘한 길만을 가셔야 했던가
이 땅에 따스한 봄겨울이 없어
사나운 눈보라를 맞받아 가셔야
했던가

사랑하는 인민이 귀중해
자욱자욱 정을 묻으시며
천신만고의 천리만리로
인민의 행복이 마중으로
번영의 천리만리를 이어놓으신
우리 장군님

그 길은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후무후한 길
오직 우리 장군님만이
끝까지 열어가신 승리의 길

그 길에서 언제나
그이는 인민과 함께 세웠다
장군님께 인민은
힘이며 기쁨이며 한생의 최열
인민에게 그이는
행복이며 영광이며 빛나는 승리

인민과 영광을 함께 한
그 모든 길들이
장군님의 한평생길을 이루었나니
그이의 불같은 심장의 박동을 안고
우리애에 만민의 대통령이 되고
강성조선의 무궁세월이 펼쳐졌구나

오, 길이여 내 나라의 길이여
같이도 같이도
우리 장군님의 모습만 가슴에 사무쳐
내 뜨겁게 알아보노라
어머님과 인민이 혈연의 정을 이어온
혈맥처럼 열매처럼

(시) 전선길의 들꽃향기

한 광 촌

산천의 푸른빛을 차가워 비껴내고
꽃없이 펼쳐진 천리길을 왔는가
고요해라
아전차를 조용히 멈춰세우고
장군님 걸음 옮기시는 사연같은 산기슭

하얗은 날중에도 오신 이같은
전복의 불기름을 띄우시며
수령님 이곳에 발자취 새기신 날
부는 바람결에도
뜨겁게 실려오는 간절한 그리움

지속자욱 추억을 안고 다가서는
수령님의 현지도표식비
어린 일인가

걸음을 멈추신 그이
아침이슬 머금은 들꽃꽃잎에
장군님은 가슴 물결 젖으시어라

온 강토를 품으신 그이시건만
이 시작 그 소박한 들꽃이
어이하여 가슴을 짝 채우는것이나
꽃잎마다 어린것은
희미이 순결한 진정의 세계
보여주어도 비길수 없는 풍요의 마음

그 뒤 어기에 놓아드렸는지
아미어마 싱싱한 들꽃송이들이
꽃보다 더 예쁜
새 소년의 그 모습을

평야를 떠나시어
꽃없이 이어오신 전선길
천리만가
2천리만가
장군님은 동해의 가슴에서
달리던 아전차를 멈추시었네

앞에는 출렁이는 푸르른 바다
한복에 안겨드는 파도소리
우리 장군님 문득 하시는 말씀
—어기서부터 배를 타고 갔시더

달리고달려온 쉬임없는 전선길
그대로 달리던 목적지는 지척인데
어이하여 우리 장군님
파도이는 바다길에 오르시려는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김수산대양공전을 찾아 외국순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수산대양공전을 찾아 14일
에스바냐에 분부를 둔 조선파의
친선회의 위원장 담판대로 퍼오
네 페노스를 대상으로 하는
조선파의 친선회의대표단을 비
롯한 외국순님들이 경의를 표시
하였다.
순님들은 나라를사이의 친선
관계발전과 세계 자주화위업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어
세계 정치의 원로, 혁명의
대성인으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인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리며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관제발전과 세계 자주화위업
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어
세계 정치의 원로, 혁명의
대성인으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
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인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리며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24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
국제취거 축전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민주세
인민이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4일
제24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
국제취거축전 참가자들이 꽃바
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
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세계의 평화와 인
정수호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띄
여져있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대양상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꽃바구니 진정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대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
는 행사가 13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
되었다.
행사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
장, 배익주부의장, 배진구부의
장, 김사무총장, 박주호부의
장, 강수현부의장, 김계일본조
선민주노동당 중앙상임위원
회 위원장, 홍인용 총련중앙감
사위원회 위원장, 홍현중양고
문, 국장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간도지방의 총련본
부 위원장들, 총련일군들, 동포
들,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
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주제의 대양으
로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
며 조국의 번성번영의 단념도
대를 바린해주시었으며 재일
동포들을 자애로운 사랑의
함께 안아 애국애족의 선각
자로 키워주시고 총련을
일심단결의 대오로 다져주시
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절세위인의 대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어머니장군님의 사상
과 업적을 빛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영도
를 따라 조국건국의 새 력사가
펼쳐질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
련의 위용을 세계대방에 더욱
힘있게 펼쳐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었다.

제20차 김일화축전에 참가할 중국순님들과 재중동포들 도착

광명성절에 즈음하
여 최수봉부의장을 단
장으로 하는 제20차
인용련합회축하단이
14일 평양에 도착하
였다.
평양에서 김진
국 해외동포사업
국 국장이 맞이하
였다.

로씨야에 갔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 귀국
로씨야에서 진행된 세계민주
청년연맹 총회사회의에 참가
했던 정영민 청년동맹중앙
회의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
이 14일 평양으로 귀국하였다.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평천혁명사적지참관

평양제류의 나날을 이어가고있
는 《광명성-4》호발사성공에 기
여한 성원들이 14일 선군총대의
고향 평천혁명사적지를 참관하
였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주체조선의 무적막강
한 국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피시
는 우추정복자들이 도착하자 사적
지의 일군들과 강사들이 꽃달을
안겨주며 열렬히 축하하였다.
위훈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거룩한 현지도자자욱을 따라
주체적국방공명의 창설과 강화된
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
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
들과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
았다.
그들은 백두밀림의 열적폭탄
과 평천리의 기관총으로 시작
된 자위의 병기창을 정의의 핵
보검으로 더욱 격세기 다져주시
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녀편을 받들
어 우리 조국을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들 감사의 인사
를 삼가 드리면서 광명성 4호의
노드쳐가는 내 조국의 힘
찬 진군을 과학기술로 적극 추
동해나갈 불타는 열의를 다짐하
였다.
이날 우추정복자들은 우리 당의
승고한 인민사랑속에 기념비적창
조물로 훌륭한 일대선 인민애의
상징에서 증거는 휴식의 한때를 보
내었다.



광명성절경축연회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

광명성절경축연회가 12일 로
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칸스판틴 폴리프스
키 로씨야연방 전총련방주재
대무명전대표, 키르도르 엘
리예예브 내부위성 내부우에게
미야취후단 단장, 바베르 오브란
니코프 21세기위원회 단장,
알레리 우하닌 전 주조 로씨야
연방 총명전대표, 알레안드르
프르호호브 자브르라신문사 책
임위원 인사들과 로씨야연방
공산당, 정의의 로씨야당, 로씨
야자유민주당,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전련맹블레비코공산당,
쇼련공산당, 로씨야의무당, 원중
발전당, 상공회의소, 로스오브론
엑스포르프치사, 주체사상연구
협회, 모스크바보병위원회,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연조 로씨야협회, 로씨
야어언인용련합회를 비롯한
정당, 정부성, 기관, 사회단체,
과학,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의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김정일전대표와 대사관성원들
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광명성절경축연회가 12일 로
씨야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칸스판틴 폴리프스
키 로씨야연방 전총련방주재
대무명전대표, 키르도르 엘
리예예브 내부위성 내부우에게
미야취후단 단장, 바베르 오브란
니코프 21세기위원회 단장,
알레리 우하닌 전 주조 로씨야
연방 총명전대표, 알레안드르
프르호호브 자브르라신문사 책
임위원 인사들과 로씨야연방
공산당, 정의의 로씨야당, 로씨
야자유민주당,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전련맹블레비코공산당,
쇼련공산당, 로씨야의무당, 원중
발전당, 상공회의소, 로스오브론
엑스포르프치사, 주체사상연구
협회, 모스크바보병위원회,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연조 로씨야협회, 로씨
야어언인용련합회를 비롯한
정당, 정부성, 기관, 사회단체,
과학,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의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김정일전대표와 대사관성원들
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남포항에서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외국선
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14일
남포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남포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모임 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양상이 보쳐져있었다.
로씨야국적선박 《베리노》호,
베나미국적선박 《아우라이》호,
중국국적선박 《진푸영 68》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
서는 연일들이 있었다.
연일자들은 해마다 광명성절
을 조선인민들이나 자수성을
지향하는 세계 전보적인민들이
인류공통의 명절로 삼대히 경축
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홍비시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인회
위원장인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무리가 내린 백두산
에서 광명성으로 탄생하시어 항
일대전의 보성을 자강가로 들으
시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
었다고 말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독
창적인 선군정치로 적대세력들
의 악랄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
으로부터 나라의 존엄과 자주성
을 지키고 조선을 정치사상재
국,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재
작 및 발사국으로 전진시키시었
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
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한 영도에 의하여 조선인민이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
사에서 또다시 완전성공하는 빛
나는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일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조선
인민은 이 땅에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
세우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
택되었다.

해외동포대표단들 도착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김택
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단
동시조선경제문화교류협회대
표단이 14일 평양으로 평양에 도
착하였다. 이에 앞서 교동경의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상해
성 조문화
전과유한
공사대표
단과 미산
호용경리
를 단장으
로 하는
중국 베이
징총장한
구공예용
사대표단이
도착하였다.
이제 앞서 캐나다조선인민
합회대표단이 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 단동시조선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



